

인도 무화과에서 한국 풀잠자리알까지*

- 우담바라의 전설과 인도 우담바라(udumbara)에 대하여 -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우담바라는 어디에서 피는가?

드물지 않게 신문에 떠오르는 ‘우담바라’라는 전설적인 꽃에 대한 기사들이 있다. 돌불상에 핀 꽃이라는 사진부터 절의 처마끝에 핀 우담바라라는 기사는 물론 건조중인 선박에 핀 상서로운 징조의 우담바라에 대한 보도¹⁾까지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끝만큼 다양하기만 하다. 좀 더 의외의 경우라면 승려의 손가락에 핀 우담바라에 대한 보도²⁾부터 심지어 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1) 연합뉴스 2006년 6월 19일자 보도: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군 삼호읍 위치)이 건조중인 컨테이너선 아랫부분 표면에 이슬처럼 맺혀있는 쭉쌀알만한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이 피었다”.
- 2) 연합뉴스 2006년 9월 1일자 보도: “경남 양산시 웅상읍 천명사의 비구니승려인 정

주제어: 우담바라, 優曇跋羅, udumbara, *Ficus racemosa* Linn, 무화과
u-dam-ba-ra, 優曇跋羅, udumbara, *Ficus racemosa* Linn, fig tree



출처: 이종욱 (1998), p. 219.

[그림 1] 잎의 뒷면에 달린 풀잡자리(Chrysopidae)의 알. 실을 내어 알을 달아 놓은 모습이다.

심외의 편익점 유리창에까지 피었다는 우담바라에 대한 보도들³⁾까지도 있다. 이 보도들에 등장하는 우담바라의 사진들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신기하게 생긴 하얀 작은 동그란 알갱이들이 가느다란 대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보도들에 한결같이 곁들여지는 설명은 이 우담바라 꽃이 불경에 나오는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희귀하고 상서로운 꽃이라는 것이다. 이 ‘우담바라꽃’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은 왜, 어디에서, 어떻게 이러한 꽃에 대한 전설이 생겨나고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문화권의 고전을 이해하는 일에서 그 문화적 배경이 되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에서 전승된 텍스트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우담바라

주스님이 손가락에 핀 우담바라를 보호하기 위해 PET병을 잘라 손가락에 고정시킨 모습”.

3) 연합뉴스 2011년 8월 31일자 보도: “훼미리마트에 핀 우담바라 화제”.

(udumbara)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상징성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을 그려낼 것이다. 그리고 우뚝바라의 어떠한 생태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담바라(優曇跋羅)⁴⁾ 전설을 만들어 내는 근거가 되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의 종교전통 안에서 갖고 있던 우뚝바라의 독특한 위치가 이 나무의 생태적인 특징에서 기원한 것이며, 이러한 특징에 대한 부분적인 오해가 인도 불교전통에 나타나는 우뚝바라에 대한 관념들을 만들어 낸 근거가 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담바라의 관념이 동북아시아로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인도에서 시작된 긴 이야기의 종착점으로 삼고자 하는 한국의 우담바라에 대해 아주 짧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우리가 요즘 ‘우담바라’라고 접하게 되는 꽃의 사진들은 사실 꽃이 아니라 풀잠자리의 알이고, 그것을 꽃으로 간주하거나 우담바라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무의식중에 이것에 인도의 무화과나무 중 한 종류인 우뚝바라가 갖는 종교적인 의미를 우리가 투사하고 있게 된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상서로운 꽃이라는 믿음의 연원은 인도에서 자라는 ‘우뚝바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인도 종교전통에서의 우뚝바라가 갖는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베다(Veda)전통에 나타나는 우뚝바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베다(Veda)전통에서 나타나는 우뚝바라(udumbara)

인도의 베다전통에 속하는, 아마도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제사의식이

4) 중국불교 전통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전통을 언급하는 맥락에서는 ‘우담바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인도 전통을 언급할 때에는 ‘우뚝바라’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바로 아그니호뜨라(agnihotra, 제사의식용 불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사)일 것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의식용 불을 피우고 거기에 유제품을 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연원은 물론이고 의미에 대한 설명과 기록들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들은 이미 베다의 수많은 텍스트들에서 나타난다.⁵⁾ 특히나 『사따빠타브라흐마나』(Śatapatha-Brāhmaṇa) II 3.1.13에는 비데하(Videha)의 왕 자나까(Janaka)가 브라흐만(brāhmaṇa, 사제)들과 벌이는 아그니호뜨라(agnihotra)에 대한 브라흐모다(brahmodya)가 나타나기도 한다. ‘브라흐모다’란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으면서 지혜를 겨루는 일인데, 제사의식의 일부로서의 겨루기를 하는 여러 형식 중 하나이다. 이러한 베다전승 내부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그니호뜨라에 대한 사변적인 논의들의 근거가 되는, 원형적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는 아마도 『까타까쌍히따』(Kāthaka-Saṃhitā) 6.1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prajāpatir vā idam āsit. tasmād agnir adhyasrjyata. so 'sya mūrdhna ūrdhva udadravat. tasya yal lohitaṃ āsit tad apāmr̥ṣṭa tad bhūmyāṃ nyamārt. tata udumbaro 'jāyata. tasmāt sa lohitaṃ pacyate. sa prān prādravat. taṃ svā vāg aiṭṭa⁶⁾ juhudhīti. sa itaḥ paryamr̥ṣṭa. tat svāhety ajuhōt. tasmād eṣaivam āhutiḥ svā hy enam vāgaiṭṭa.

쁘라자빠띠가(태초에) 여기 있었다. 그 [쁘라자빠띠]로부터 아그니가 내뿜어졌다. 그 [아그니는] 이 [쁘라자빠띠]의 머리)에서 위로 튀어올랐다. 그 [쁘라자빠띠]에게 [남아] 있던 붉은 것 [즉, 피]를 그

5) Mylius(1995), p. 25, s.v. agnihotra를 보라.

6) Bodewitz(1976/2003), p. 19, n.6은 내용상 이 대목이 ‘aiṭṭa’(requested)가 아닌 ‘āha’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화의 근본적인 맥락과 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svāhā’라고 하는 주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원래의 맥락상 텍스트가 그러해야 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된다.

7) Bodewitz(1976/2003), p. 19, fn.2를 보라.

는 닦아냈고 대지에 발랐다. 거기에서 우둠바라[나무]가 생겨났다. 그래서 그 [우둠바라]는 (열매가) 빨갭게 익는다. 그 [agni]가 앞으로 [도망쳐] 내달렸다. 그 [쁘라자빠띠]에게 자신의(svā) 말(vāk)⁸⁾이 “[봉헌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라”라고 요구했다. 그 [쁘라자빠띠]는 여기 [자신의 이마]에서⁹⁾ (피를) 닦아냈다. 그래서 (쁘라자빠띠는) “쓰바하”(svāhā)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지냈다. 따라서 이렇게 [“svāhā”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이 (아그니호뜨라 의식)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쁘라자빠띠] 자신의(svā) 말이 (이 제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¹⁰⁾

여기 『까타까쌍히따』에 서술된 내용을 합당한 맥락 안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다의 세계관에서 보는 제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베다시기 인도인들의 세계관에서 제사란 신들까지도 포함하는 우주의 운행을 일정정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위로 이해된다. 단, 제사가 정확하게 그 요청되는 형식과 내용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는 한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사의식이 수행되어야 올바른 제사의식이 될 것인가의 질문이 제기될 것인데, 이것은 곧바로 제사의식이 지니는 우주의 전개를 좌우할 수 있는 구속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닿아 있다. 베다시기 제사의식의 힘 내지는 구속력의 원천은 바로 신화적인 사건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제사의식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재현 내지는 반복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어떠한 도구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8) ‘말소리’(voice)를 말한다.

9) Bodewitz(1976/2003), p. 19, fn.4는 칼란트(Caland)의 1903년 저술을 인용하면서, 이 대목이 베다의 구전전승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됨을 말하고 있다. 이 텍스트를 암송하면서 가르치는 스승이 자기의 손으로 이마를 닦아내는 행동을 하면서 ‘여기에서’라고 말을 하면 듣고 따라 외우는 제자는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모든 원전자료의 번역은 필자 자신의 것이다.

이란, 이 개별적인 제사의식의 요소들과 신화적 사건의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brāhmaṇa)들이다. 여기에 인용된 예는 아그니호뜨라 제사의식이 왜 우뚝바라나무와 연관되는지, 그리고 왜 이 제사의식이 처음에 ‘쓰바하’라는 주문¹¹⁾을 외우면서 시작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우뚝바라에 관련된 내용만을 살펴보도록 하자.

쁘라자빠띠의 피(lohita)가 지상에 발라진 신화적 사건에서 우뚝바라의 붉은(lohita) 열매의 색이 연원한다는 설명이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다. ‘róhita’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붉다’이다. 따라서 『릭베다』(R̥gveda) 등에서 ‘붉은 말’을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붉다’라는 의미에서 고대 이란의 아베스타에 있는 연관어도 확인된다. 중성명사로 쓰여서 ‘피’의 의미로 나타나는 용례도 있는데¹²⁾ 이러한 사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어휘가 갖는 다의성을 활용해 ‘피’와 ‘붉음’을 연관시키고, 이 연관에 근거해서 우뚝바라와 제사의식의 필연적 연관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마이뜨라야니아쌍히따』(Maitrāyaṇīya-Saṃhitā) 1.8.1에도 나타난다.

아그니호뜨라의 진행과정에 따라 특정한 나무로 만든 특정한 크기의

11) 이 주문은 불교전통에서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모지사바하’ 혹은 ‘보디사바하’(菩提娑婆訶)의 형태로 현대 한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주문이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설명은 제사를 시작할 때 외우는 주문 ‘svāhā’를 우선 ‘svā’(‘자기 자신의’를 의미하는 여성형)와 ‘āhā’(말하다)의 결합형으로 상정해 두고, 거기에 걸맞은 방식으로 신화적인 배경을 구성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어형분석이 현대 역사언어학적인 의미에서의 어원론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svāhā’의 어원분석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KEWA Bd.3, pp. 569-570을 보라.

12) KEWA Bd.3, pp. 81-82, s.v. ‘rohitaḥ’를 보라.

장작들이 불을 살리는 데에 보태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왜 일정한 크기로 준비된 특정한 나무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서술은 『샤따빠타브라흐마나』(Śatapatha-Brahmaṇa)에서 살펴보자.

atha udumbarīm ādadhāti. devās cāsūrās cobhaye prājāpatyā aspardhanta. te ha sarva eva vanaspatayo ’surān abhyupeyur udumvaro haiva devān na jahau. te devā asurān jītvā teṣāṃ vanaspatīn avrñjata.¹³⁾

이제 [제사관은] 우둠바라나무 [장작]¹⁴⁾을 [불에] 올린다. 신들과 아수라(asura, 나쁜 신)들은 둘 다 뿌라자빠띠(Prajāpati)에서 [나왔고] 서로 경쟁하였다. 그런데 모든 식물들이 아수라의 편이 되었고, 우둠바라만 신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신들이 아수라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른] 나무들이 (가진 것들을) 뽑아냈다¹⁵⁾.

te hocuḥ. “hanta yaiṣu vanaspatiṣūrg yo rasa udumbare taṃ dadhāma. te yady apakrāmeyur yātayāmā apakrāmeyur. yathā dhenur dugdhā yathānaḍvānūhivān” iti tad yaiṣu vanaspatiṣūrg yo rasa āsīd udumbare. tam adadhus tayaitad ūrjā sarvān vanaspatīn prati pacyate. tasmāt sa sarvadārdraḥ sarvadā kṣīrī. tad etat sarvam annaṃ yad udumbaraḥ sarve vanaspatayaḥ. sarveṇaivainam etad annena prīṇāti sarvair vanaspatibhiḥ saminddhe.¹⁶⁾

그 [신]들은 말했다. “자! 이 나무들에 있는 즙, 그 생명력(rasa)이라면 이 [우둠바라]에 실어 주자. 그 [나무]들이 우리를 버릴 것이라

13) 『샤따빠타브라흐마나』(Śatapatha-Brahmaṇa) 6.6.3.2

14) 제사의식용 장작(samidh [f.])이 불에 보태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 맥락이다. 앞선 『샤따빠타브라흐마나』(Śatapatha-Brahmaṇa) 6.6.2.10을 참조하라.

15) 동사 말뿌리 √vrj의 의미는 ‘짜내다’(twist[off])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Eggeiling(1882-1990) vol. 3, p. 256이 “... took possession of their trees”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맥락에 맞추어 ‘나무들이 가진 정기라거나 수액을 쥐어짜서 빼앗다’고 이해하면 적확하다고 보인다.

16) 『샤따빠타브라흐마나』(Śatapatha-Brahmaṇa) 6.6.3.3.

면, 마치 젖을 다 짜낸 암소나 [수레를] 끌다가 (지친) 솟소처럼, 소진된 채로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무들에 있는 즙, 그 생명력이 우뚝바라에 놓였다. 그리하여 그 [우뚝바라]에게 [즙, 그 생명력을] 실어 주었고 이 즙 때문에 이 [우뚝바라]는 모든 다른 나무들에 상대하여, [맞상대가 되어 같은 시기에¹⁷⁾ 열매가 맺도록 한 해에도 여러 번 열매가] 익는다. 따라서 이 [우뚝바라나무]는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고 항상 우유[가 찬 것 같은 즙을 갖는다.] 그래서 이 [우뚝바라나무]는 모든 음식이며 모든 나무들이다. 이 [우뚝바라나무]는 모든 음식들을 가지고 [아그니를] 만족시키며 [또] 모든 나무들을 가지고 [아그니를] 불붙여 올린다.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뚝바라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의 즙, 혹은 생명력을 모두 다 가진다고 간주될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는 나무이며 또 그에 맞게 즙이 풍부할 뿐더러 열매를 자주 맺는 나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우뚝바라는 베다의 제사의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무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맥락은 베다의 제사의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불(agni)을 살리기 위한 땀감 나무(samidh)로 우뚝바라가 사용된다는 것이며, 그 이유로는 우뚝바라나무의 풍부한 즙과 생명력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불 살리기에 쓰이는 나무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다. 예로 현재 인용한 『샤따빠타브라흐마나』의 맥락에서는 우뚝바라나무에 대한 설명의 앞뒤로 비강까따(vikaṅkata, *Flacourtia sapida* Roxb.)¹⁸⁾와 빨라샤(palāśa, *Butea monosperma*)¹⁹⁾가 나온다. 하

17) Eggeling(1882-1990) vol. 3, p. 257, fn.1은 『아이따레야브라흐마나』(Aitareya-Brāhmaṇa) 5.24를 근거로 “... its fruits ripen three times a year.”라고 설명하고 있다.

18) 우뚝바라나무에 앞서서 비강까따 나무에 우선 불을 붙이는 이유가 샤따빠타브라흐마나(Śatapatha-Brāhmaṇa) 6.6.3.1에 서술되어 있다. 이 나무는 단단한 나무이지만 특히나 변형이 적은 나무여서 뜨겁게 녹인 유제품을 담은 용기나 혹은 이것을 퍼나르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적합한 나무이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Syed(1990), pp. 509-514, 특히 p. 513을 보라.

지만 여기에서 우뚝바라가 사용되는 맥락과 의미는 다른 나무들과 구분되고 있으며, 생명력 그리고 그 생명력을 통한 생명체들의 변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에는 가축의 변성을 통한 물질적인 풍요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면을 밝혀주는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샤파빠타브라흐마나』 7.4.1.38을 보자. 이 맥락은 해당되는 구절에 앞선 7.4.1.36에서 ‘쓰룻’(sruc [f.]²⁰)이라고 하는 제사용 주걱 혹은 국자를 내려놓는 행위 대한 이야기에 연관된다. 앞선 7.4.1.37에서는 까르스마라(kārṣmarya, *Gmelina arborea*)²¹)로 만든 쓰룻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뒤이어 7.4.1.38에는 우뚝바라나무로 만든 쓰룻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athaudumbarīm uttarata upadadhāti. ūrg vai rasa udumbara. ūrjam evāsminn etad rasam dadhāti. dadhnā pūrṇā bhavati. raso vai dadhi. rasam evāsminn etad dadhāti.

왼쪽 [즉 북쪽]에 우뚝바라나무로 된 제사용 국자(sruc)를 놓는다. 우뚝바라는 바로 즙, [다시 말해] 생명력(rasa)이다. 이것은 바로 이 즙을 [다시 말해] 그 생명력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응유로 가득차 있으며, 응유란 바로 생명력이다. [그러니] 이는 생명력을 여기에 실어주는 것이다.

19) 『샤파빠타브라흐마나』(Śatapatha-Brahmaṇa) 6.6.3.7을 보라. Syed (1990), pp. 204-210 참조. 베다에서는 중요한 나무이다. Roxburgh(1832), pp. 244-247에서는 *Butea frondosa* Roxb.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Syed(1990), pp. 208-209를 보라.

20) 이 ‘쓰룻’(sruc)이라고 하는 국자는 사람 팔 길이의 큰 제사용 수저나 주걱같은 것인데, 머리는 사람 손만한 크기로 새의 부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떠서 부을 수 있게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juhū, upabhr̥t, dhruv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녹인 버터를 불에 떨구는 데에 사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Mylius(1995), p. 139 s.v. ‘sruc’와 Eggeling(1882-1990) vol. 1, pp. 67-68, fn.2를 보라.

21) 이 나무에 대해서는 Syed(1990), pp. 198-203을 보라.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둠바라나무가 즙이 풍부하고, 그 즙은 곧바로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것은 또 다시 하얀 즙과 연상되는 유제품인 응유를 제사의 맥락에서 상징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유목민들에게 유제품은 주된 식품일뿐 아니라, 가축의 재생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응유(dadhi)는 뜨거운 우유를 반복적으로 부어가면서 만들어지는데, 공물을 바치는 형식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공물이다.

이상 『사따빠타브라흐마나』에 나타난 설명들에 근거해서 베다의 제사의식에서 우둠바라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베다의 전승은 각 전승전통(śākha)별로 정해진 텍스트를 전승한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얀-야주르베다(Śukla-yajurveda)에 속하는 마단디나 전승전통(Madhyandina-śākha)에서 전승하는 내용을 주로 소개한 셈이 되었지만, 다른 전승전통들의 텍스트들에서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이 전승되는 곳은 수없이 많다.²²⁾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 19.31.1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udumbareṇa maṇinā puṣṭikāmāya vedhasā |

paśūṇām sarveṣām sphātiṃ goṣṭhe me savitā karat ||

우둠바라로 만든 부적을 가지고 덕 있는 자가 풍요를 갈구하니
짜비뜨리(Savitṛ)가 내 가축우리에 모든 [가축의] 풍성함을 만들지니.

우둠바라나무의 특징적인 성격이 그 풍부한 즙과 생명력이어서, 우둠바라나무로 만든 부적은 그것을 지닌 사람을 경제적인 곤란함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흔적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러한 우

22) 그렇다고 필자가 베다전승 전체가 통일된 방식으로 제사의식들을 규정하고 실행했다고 전제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미 『립베다』(Rgveda)에서도 전승에 따라 제사의식의 실행 방식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의 맥락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Gonda(1979) 특히 sruc에 대한 것은 p. 260을 보라.

뽕바라의 힘을 믿었던 까닭에 우뚝바라는 제사의식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나무였고 이러한 흔적을 우리는 인도의 전통 어휘사전에서도 볼 수 있다.

인도의 전통 어휘사전류를 대표하는 문헌인 『아마라꼬샤』(Amarakośa)에는 우뚝바라를 ‘yajñāṅga’(제사의 일부, 제사에 필요한 것)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²³⁾ 『아마라꼬샤』의 원래의 공식 이름은 『나마링가누사사나』(Nāmaliṅgānuśāsana)이고 이 저작은 총 세 장(kāṇḍa)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가장 긴 두번째 장(bhūmyādikāṇḍa, 땅 등등에 대한 장)은 땅(bhūmi-varga)과 관계되는 단어를 모은 절로 시작해서 도시와 관계되는 단어들을 모은 절(pura-varga) 등 10개의 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네번째 절, 나무와 약초에 대한 절(vanaśadhi-varga)의 22번째 단어설명에 우뚝바라가 나온다.

udumbaro jantuphalo yajñāṅgo hemadugdhaḥ.²⁴⁾

우뚝바라는 jantuphala나무인데 제사에 필요한 것이고, 그 즙이 소중한 것(hema, 금)인 나무이다.

이 설명이 앞서 베다텍스트들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우뚝바라의 특징과 연관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아마라꼬샤』가 제시하고 있는 나무들의 순서에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항목에 바로 앞서는 2.4.20에서는 ‘bodhi-druma’(깨달음의 나무,菩提樹)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전의 저자인 아마라싱하(Amarasimha)는 불교도였는데²⁵⁾ 그가 불교

23) Syed(1990), p. 128에서 사이드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Amarakośa』에 대해서는 Vogel(1979), pp. 309ff. 이하를 보라.

24) 『아마라꼬샤』(Amarakośa) 2.4.22.

25) 『아마라꼬샤』는 1.1.14 이후로 나열되는 신들의 이름에 앞서서 1.1.13에서 분다를 우선 언급하고 있다. 『아마라꼬샤』 1.1.13: sarvajñah sugato buddho dharmarājas tathāgataḥ.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를 언급한 뒤에, 나무들을 언급하면서 우뚝바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인도의 베다전통과 마찬가지로 불교전통 안에서도 우뚝바라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이러한 베다전통의 종교적인 맥락에 대한 생물학적인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 우뚝바라의 식물로서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3. *Ficus racemosa* Linn. 혹은 *Ficus glomerata* Roxb.

우뚝바라의 학명은 ‘*Ficus racemosa* Linn’인데 일반적으로 자주 보게 되는 이름은 ‘*Ficus glomerata* Roxb.’이다. 뒤에 제시된 이명에서 명명자의 약칭인 ‘Roxb.’은 근대 인도 식물학에서 큰 업적을 남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윌리엄 록스벅(William Roxburgh, 1751-1815)의 약자이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세 권으로 이루어진 『*Flora Indica: or, Descriptions of Indian Plants*』이다. 이 작품은 아직도 역사적인 가치 이상의 활용가치를 지닌 업적이며, 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이 작업에서 록스벅이 우뚝바라에 대해 “This species yields much milky juice.”²⁶⁾라고 서술하고 있는 대목도 베다에서 우뚝바라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 우리에게는 흥미롭다.

쌍쓰끄릴 이름 ‘udumbara’는 아마도 오스트로아시아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나온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마이어호퍼(Mayrhofer)는 신타리(Santālī)어에서 ‘가득찬’ ‘부풀어 오른’을 의미하는 ‘dub’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아는 자(一切智者), [해탈의 길을] 잘 간 자(善逝), 분다, 가르침의 제왕, 그렇게 [모범이 된 해탈의 길을] 간 자(如來).

26) Roxburgh(1832), p. 559.



출처: Rainer Zenz, “Feige–Schnitt” 24 March 2005 via Wikipedia.org, Wikimedia Commons.

[그림 2] 무화과열매의 단면

예에서와 같이, 오스트로아시아어족(Austroasiatic languages)언어들의 ‘부풀어 오르다’의 뜻을 지닌 어원과 연관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²⁷⁾ 그리고 종종 불교텍스트에서 나타나는 ‘udumbara’라는 형태는 ‘udumbara’의 이형이라고 생각된다.²⁸⁾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약 750종²⁹⁾의 무화과나무들 중 호주와 인도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무화과나무가 바로 우뚝바라이다. ‘무화과’(無花果)라는 명칭 자체가 암시하듯 무화과나무는 꽃이 보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보이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무화과는 꽃받침 혹은 꽃자루가 주머니 모양으로 비대해지면서 꽃이 피는데, 그 주머니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과일이 열린 것처럼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과

27) KEWA Bd.1, p. 104, s.v. ‘udúbarah’를 보라.

28) KEWA Bd.1, p. 101에서 udúbarah는 udúbarah의 이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Witzel의 견해로 전자는 고전쌍쓰끄린 형으로 나무를 가리키는 이름이며 파생된 udumbalá와 이와 연관되는 다른 형태들은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다.

29) Cook & West(2005), p. 978c.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겉을 둘러싼 둥그런 꽃받침이고,³⁰⁾ 그 속에 난 수백개의 작은 털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두 개별적인 꽃들이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라고 오해되는 꽃받침 안쪽으로 수많은 작은 꽃들이 박혀있는 구조로 꽃이 핀다. 그리고 그 꽃들을 묶은 다발의 역할을 하는 꽃받침의 끝쪽에 아주 작은 구멍만 자리잡고 있어서 육안으로는 꽃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꽃이라면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꽃받침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암꽃과 수꽃이 구분되어 있는 무화과의 꽃들도 수정되어야만 한다.³¹⁾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가진 꽃받침의 구조상 아주 작은 구멍(ostiole)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날벌레가 들어가지 않는 한 수정은 불가능해진다.³²⁾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무화과 종류들은 이 역할에 특화된 아주 작은 날벌레들이 있어서, 이 날벌레들이 꽃받침의 내부로 통하는 아주 작은 구멍을 비집고 안쪽으로 들어가 꽃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곳에서 꽃가루를 뿌려 암꽃들을 수정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알을 낳고 죽는다. 나중에 알에서 깨어난 작은 애벌레들은 이 개별 꽃들 안에서 즙을 빨아먹고 자란다. ‘무화과’의 내부는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 역할까지 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자라난 다음 세대의 날벌레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암컷

30) 이러한 꽃받침을 ‘syconium’(은두 꽃차례)이라고 부른다.

31) 무화과들은 종류에 따라 각 무화과 안에 약간 수의 수꽃과 많은 암꽃이 함께 자리잡는 암수한몸(monoecious) 방식의 무화과가 있고, 개별 무화과가 수꽃 혹은 암꽃만을 가지고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암수딴몸(dioecious)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숫무화과(gall fig)는 무화과말벌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암무화과(seed fig)는 무화과나무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뚝바라는 한 무화과 안에 암수 꽃들이 함께 자리잡는 경우이다; Jia et al.(2008)을 참조하라. 소수의 무화과나무 종류는 곤충을 매개로 하는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2) [그림 2]의 단면사진 왼쪽 아래로 보이는 것이 꽃받침과 외부를 연결하는 작은 구멍이다.

들은, 암컷들보다 먼저 부화되어 자라난 숫컷들의 정자를 받아 수정된 상태로, 무화과 내부에 있는 수꽃들의 숙성된 꽃가루를 몸에 바르고 다른 새로운 무화과를 찾아 떠나게 된다. 무화과의 과일 — 정확하게는 꽃받침 — 이 완전하게 숙성되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애벌레들의 성장과 암컷의 수정과 탈출까지가 모두 이루어진 후이다.³³⁾ 그리고 이 과정은 몇 주일이 걸리지 않는다.³⁴⁾ 벌어진 잘 익은 무화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수정된 작은 개별 꽃들이 만들어낸 무화과의 씨앗들이다. 이 씨앗들을 먹는 새나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이 무화과의 씨를 퍼뜨리게 된다. 이처럼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진 까닭에 상당수의 무화과나무들과 이들을 수정시키는 날벌레들은 대표적인 공동진화(coevolution)의 예가 되며 다면적 의존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생태계의 흥미로운 한 단면을 보여준다.³⁵⁾ 이상에서 서술한 무화과의 특징 때문에 꽃받침을 과일

33) 무화과의 과일이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화과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애벌레의 생장은 완료되어야 한다. 현재의 맥락에서는 무화과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기타 곤충들, 그리고 무화과 외층부에 긴 산란관(ovipositor)을 삽입해 넣는 방식으로 무화과 안에 배란을 하지만 수정매개체(pollinator) 역할을 하지 않는 종류의 무화과말벌이라거나 기타 기생충 등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무시하도록 하겠다. 무화과와 무화과말벌에 대한 짧지만 유용한 서술로는 Cook & West(2005)를 보라. 무화과와 무화과말벌의 연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들과 사진자료들은 <http://www.figweb.org>(2013년 06월 01일 확인)을 참조하기 바란다.

34) Jia et al.(2008)의 연구는 호주의 북퀸즈랜드(Queensland)의 로스강(Ross River)변의 단일 군집에 속하는 *Ficus racemosa* 24개체를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관찰한 결과이다. 이 우듬바라와 같은 종류의 무화과가 맺히고 익어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까지의 총 기간이 평균 43.63일이었다고 한다. 해당 논문의 93쪽을 보라. 그런데 연구자들이 설정한 무화과의 발전단계들 중에서 무화과말벌이 개입되기 이전(A phase)과 이후(E phase)의 단계를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라 판단하자면 무화과말벌이 한 *Ficus racemosa* 열매 개체 안에서 증식활동을 하는 총 과정이 평균 33.12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Rønsted et al. (2005), p. 2598의 무화과와 연관 날벌레의 계통발생(phylogeny)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인상에 남을 만한 결론적 서술은 이리하다:

로 생각하는 인간이 무화과열매를 먹게 되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애)벌레, 혹은 날벌레가 많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무화과의 수정매개체 (pollinator)인 이 날벌레를 ‘agaonid wasps’ 혹은 ‘fig wasps’이라고 부르는데, 무화과말벌과(Agaonidae)에 속하는 말벌들이다. 이들과 무화과나무의 상호의존관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긴밀한 것일 수밖에 없다.³⁶⁾ 이러한 이유에서 인도고전에 나타나는 우둠바라와 ‘날벌레’(maśaka)는 떨려야 떨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연관관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의 한 대목을 보자.

yathā matsyo ’dbhir anyah san samprayuktau tathaiva tau |
maśakodumbarau³⁷⁾ cāpi samprayuktau yathā saha ||³⁸⁾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ly inferred ages of closely associated fig and pollinator lineages in the present study provides the most compelling evidence to date for long-term co-divergence in this now classical mutualism during at least the past 60 million years.

36) 특정한 무화과종류와 공생하는 특정한 무화과말벌 사이에 배타적인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이 지역적인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특정한 무화과말벌이 특정한 무화과 수종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37) PW Bd.5, pp. 604-605. s.v. ‘maśaka’에는 ‘Stechfliege’, ‘Mücke’라는 의미가 주어져 있다. KEWA Bd.2, p. 603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날아다니는 벌레이고 사람을 물거나 찌르는 벌레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 같다. 우둠바라에 알을 낳는 작은 벌레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각주 39을 보라.

38) Mahābhārata 12.240.21. Syed(1990), p. 133은 이 대목을 12.140.21로 적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Mahābhārata의 다른 곳에도 나온다.

Mahābhārata 12.187.38:

maśakodumbarau cāpi samprayuktau yathā sadā |
anyonyam anyau ca yathā samprayogas tathā tayoh ||

Mahābhārata 12.187.39:

prthagbhūtau prakṛtyā tau samprayuktau ca sarvadā |
yathā matsyo jalam caiva samprayuktau tathaiva tau ||.

더욱 많은 비슷한 예는 Jacobsen(2006), pp. 598ff.를 보라.

(인간의 실체[*puruṣa*]와 그 성질[*guṇa*]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별개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과 별개이지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 둘이 그러하고, 또 날벌레와 우뚝바라와 결합되어 있으나 그렇게 [별개인 것]처럼.³⁹⁾

따라서 인도의 여러 텍스트에 나타나는 우뚝바라열매는 벌레가 많거나 혹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맥락이 있다.⁴⁰⁾ 물론 단 맛이⁴¹⁾ 강하고 채집이 쉬운 무화과열매를 먹는 새나 동물

39) 여기에서 우뚝바라와 날벌레에 비유된 것은 바로 쌍카(*Saṃkya*) 전통에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이다. 인간을 이루는 궁극적인 요소 내지는 영혼(*puruṣa*)이 물질적인 요소(*prakṛti*)와 항상 함께 나타나지만 결코 동일한 것도 아닐 뿐더러, 둘의 결합이 이 둘의 독립적인 본성을 바꾸는 방식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비유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puruṣa*를 날벌레, 물고기에 비유하고 *prakṛti*를 우뚝바라와 물에 비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가 사용되는 예는 아주 많고 또 쌍카 철학전통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비유의 내용과 형식이 거처간 변형과 발전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acobsen(2006)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야콥슨은 우뚝바라의 생태적 특성과 이와 연관되는 날벌레(*maśaka*)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콥슨은 589쪽 등에서 “mosquito (or gnat)”이라는 ‘*maśka*’에 적당하지 못한 번역을 사용하고 있고, pp. 592-593에서 fn.20에 나오는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다루자면 무화과뿐 아니라 무화과의 수분매개체 역할을 하는 날벌레, 그리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생태학적 연구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0) Mahābhārata 13.107.84:

pippalam ca vaṭam caiva śaṇaśākam tathaiva ca |
udumbaram na khādec ca bhavārthī puruṣottamah ||

Pippala[열매]와 Vata[열매]와 마의 잎은 물론 우뚝바라 [열매]는 [잘] 지내는 것을 고려하는 고귀한 자는 먹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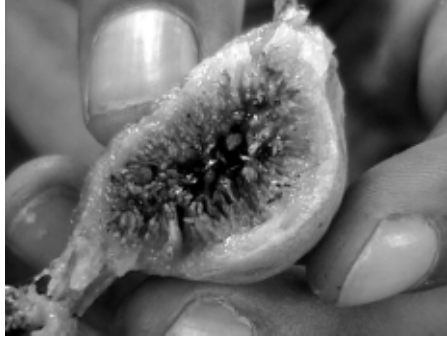
또한 Syed(1990), p. 134을 보라.

41) Aitareya-Brāhmaṇa 7.15, 여기에서는 Syed(1990), p. 133 재인용:

caran vai madhu vindati caran svādum udumbaram

움직이면서 꿀을 찾고 움직이면서 단 우뚝바라를 찾는다.

여기서 ‘달다’라는 판단은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Roxburgh



출처: Prashanthns, "Syconium_ficus_glomerata" 25 February 2010 via Wikipedia.org, Wikimedia Commons.

[그림 3] 무화과말벌이 들어 있는 우뚝바라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

들 그리고 곤충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뚝바라열매가 외부에서 접근하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나 곤충들이 먹잇감이 되는 맥락이 아니라, 앞서 말한 이 열매의 구조적이고 생태적인 특성 때문에 무화과말벌의 암컷 성충이나 알 혹은 유충들을 무화과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전부터 무화과 속에 갖게 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림 3]이 인도의 우뚝바라 안에 자리잡은 무화과말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에 출간된 자료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우뚝바라의 생태적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There are severai hundred species of Ficus and in India alone eighty. F. glomerata is the wild fig with the large, red, downy and edible fruit which, although always full of crawling insects and dangeraus to eat, is much relished by the country people. In Bengali it is known as Jagdumar and in Hindi as Umar or Gular.”⁴²⁾

vol. 3, p. 559: “The frutit is eaten by the natives. I have often tasted them, but to me they are disagreeable.”이라는 서술은 참조할 만하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무화과가 지속적으로 번갈아 가며 열려야만 한 열매에서 자라난 수정매개체인 암컷 날벌레가, 즉 무화과말벌이 자신이 자란 열매가 완전히 성숙해서 벌어지기 전에 다른 새로운 막 자라나기 시작한 무화과열매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⁴³⁾ 이러한 무화과의 특성은 앞서 인용된 브라흐마나의 구절⁴⁴⁾에서 서술한 우둠바라의 특징, 즉 “... 이 [우둠바라]는 모든 다른 나무들에 상대하여, [맞상대가 되어 같은 시기에 열매가 맺도록 한 해에도 여러 번 열매가] 익는다”라는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우둠바라는 항상 내지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수정매개체인 무화과말벌의 종족 보존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여기에 보태어 고려될 만한 우둠바라의 몇 가지 특징들이 또 있다. 우선 우둠바라의 열매가 나무의 밑동(trunk)이나 밑동에 가까운 아주 굵은

42) D. V. Cowen. *Flowering Trees and Shrubs in India Sixth Revised & Enlarged Edition*. Bombay 1970 [first published 1950], p. 70; Syed(1990), 135에서 재인용. 논문의 분량 제한으로 인해 한국어 번역은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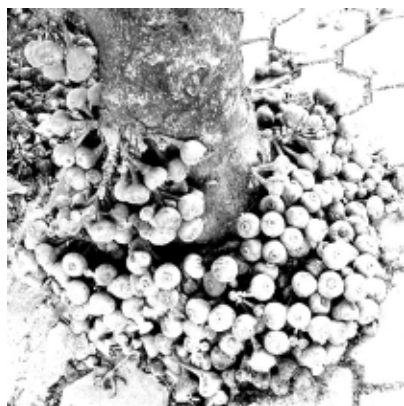
43) Athreya(1997), p. 70:

The intra-population asynchrony in fruiting of fig trees provides a continuous supply of *fig homes* for the wasps; this also results in a copious food supply for the frugivores during periods when other fruiting trees are scarce.

44) 『사따빠타브라흐마나』(Śatapatha-Brāhmaṇa) 6.6.3.3.

45) 이러한 무화과의 특징은, 특정한 시기에만 개화하고 열매를 맺는 다른 과일들과는 달리 먹잇감을 찾기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좋은 먹잇감을 여러 동물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무화과가 열대숲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식물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 그래서 대다수의 생태학자들은 무화과를 열대숲의 ‘중추 식물’(keystone plant)이라고 부르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반리드(van Rheede)의 『Hortus Malabaricus』 1권(1678), p. 44에도 ‘다른 모든 동종의 나무들처럼 1년에 두 번 또는 세 번 과일이 열린다고’(Bis terve in anno haec arbor dat fructus, uti & caeterae species,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 48을 보라.



출처: Pratheepps, “Ficus_fig-fruit-on-trunk” 12 May 2008 via Wikipedia.org,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그림 4] 나무 밑동에 우뚝바라가 열려 있는 모습

줄기(stem)에 직접 풍성하게 열린다는 사실이다.⁴⁶⁾ 이러한 특징은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척 드문 것인데 이것을 식물학에서는 ‘cauliflory’(간생화)라고 부른다. 잔가지나 잎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 열매와는 확연히 다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특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뚝바라(*Ficus racemosa*)는 ‘cluster fig tree’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뚝바라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그림 4]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다른 무화과나무와 구분되어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우뚝바라를 다산이나 풍요로움 혹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로 만드는 데에 일조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만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풍성한 송이 혹은 다발을 이루어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이 개입된 오해가 식물분류학의 역사 안에서도 있었다는 점은 우연스럽지만 재미있는 대목이다.

우뚝바라의 학명이나 혹은 식물분류학상의 서술에 대해 일차자료를

46) Roxburgh(1832), pp. 558-559:

Racemes compound, or paniced, issuing immediately from the trunk or large branches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의외의 사실은 우뚝바라의 학명에 대해 혼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뚝바라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인상을 받기 쉽겠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역사적 사정이 있다. 이에 대해서 베린(Barrett)이 상세한 연구를 통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⁴⁷⁾ 식물학에서 현재까지 사용되는 과학적인 분류체계를 도입한 Carolus Linnæus(Carl von Linné, 1707-1778)는 그의 1753년에 두 권으로 출간된 『Species Plantarum』(식물 종류들)의 2권 1060쪽에서 무화과나무(ficus)의 일종으로 ‘racemosa’를 언급하면서 “Ficus foliis ovatis acutis integerrimis, caule arboreo, fructu racemoso”(무화과나무, 잎은 다 자라면 타원에 뾰족하고 줄기는 딱딱하며 열매는 다발형태로 열림)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린네는 이러한 서술의 근거로 리드(Rheede)의 책, 『Hortus Malabaricus』⁴⁸⁾에 제시된 Atty-alu라는 나무와 레이(Ray)의 책, 『Historia Plantarum』⁴⁹⁾ 제2권 1434쪽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베린이⁵⁰⁾ 지적하고 있듯이 『Hortus Malabaricus』에서 Rheede가 이 나무의 서술에 ‘fructu racemoso’라는 구절을 사용할 때에는 ‘열매가 송이 혹은 다발 형태’로 열린다는 사실을⁵¹⁾ 서술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꽃이 피

47) Barrett(1946).

48) 일반적으로 『Hortus Malabaricus』(말라바의 정원)라고 불리는 이 책은 당시 네덜란드령 말라바(Dutch Malabar)의 총독(Governor)이었던 Hendrik van Rheede가 주도하여 1678년 첫 권이 출간된 이후 1703년에 제12권까지 출간된 인도 케랄라(Kerala)지역 식물들의 의학적인 용도를 서술한 방대한 자료이다. 원래 라틴어로 출간된 이 자료의 1권 43쪽에 ‘Atty-Alu’라는 이름으로 우뚝바라나무에 해당하는 무화과나무가 서술되어 있고, 같은 책의 그림25번에 이 나무의 그림이 제시되고 있다.

49) John Ray의 저술 『Historia Plantarum』(식물의 역사) 2권(1686), p. 1434는 Rheede의 책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Hortus Malabaricus』에 Syen이 첨가한 서술(Ficus Malabarensis folio oblongo acuminato, fructu vulgari amulo)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50) Barrett(1946), p. 314.

51)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생겨난 우뚝바라의 명칭이 바로 ‘cluster fig’인 것으로 보인다.

는 형태를 분류하여 구분한 것 중의 하나인 총상꽃차례⁵²⁾(혹은 총상화서 總狀花序, raceme)의 의미로 오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Species Plantarum』의 재판인쇄가 거듭되어 가면서 나타난 인쇄상의 오류와 서술상의 혼란이 가중되면서,⁵³⁾ 빌데노프(Carl Ludwig Willdenow, 1765-1812)가 편집한 판본인 『Linnaei Species Plantarum』 1798-1826(6 Bde.)에 가면 마침내 *Ficus racemosa*와 *Ficus glomerata* Roxb.이 별개의 나무로 함께 수록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혼동에서 비롯된 오해나 구체적인 나무의 특성들에 대한 잘못된 서술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동일한 나무, 즉 *Ficus racemosa*에 대한 서술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⁴⁾ 이러한 식물분류학의 역사적 사정 때문에 *Ficus racemosa* Linn.을 나타내는 학명에는 많은 다른 이름들과 혼돈스러운 서술들이 있어왔다.⁵⁵⁾ 하지만 여러 다중적인 서술들에 나타난 *Ficus racemosa*의 특징들을 베렷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 , aërial roots small or absent; ... ; latex very milky; ... ; figs edible but not valuable; borne from tubercles on the lower part of the trunk and the main branches, on leafless, crooked, thick, long or short, jointed and bracted twigs; appearing to form fasciculate clusters or compound (rarely simple) racemes; ...”⁵⁶⁾라는 특징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인도 고전에 나타나는 우뚝바라의 특징들과 일치한다.

52) 총상꽃차례란 긴 꽃차례축에 꽃자루의 길이가 같은 꽃들이 붙어서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순서로 꽃이 피는 꽃차례를 말한다.

53) 자세한 것은 Barrett(1946), pp. 314f.를 보라.

54) Barrett(1946), p. 316은 “It seems likely that both *F. racemosa* and *F. glomerata* of Willdenow were the species known as *F. glomerata* Roxb.”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한 서술에서 *Ficus racemosa*의 특성과 어긋나는 대목들은 대부분 문헌학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그 근원이 추정가능한 오해들에 의해 첨가된 것들로 보인다.

55) Barrett(1946), p. 317에서 이명들에 대해 보라.

56) Barrett(1946), pp. 317. 논문의 분량 제한으로 인해 한국어 번역은 생략한다.

4.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우뚝바라꽃

우뚝바라가 왜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다른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과 구분되어 특정한 종교적인 상징성을 지닌 나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해명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로서 동아시아에 전해진 우뚝바라로서의 우뚝바라가 갖는 핵심적인 특징은 ‘꽃이 없는 열매’라는 ‘무화과’(無花果) 나무들에 대한 공통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특징 때문에 우뚝바라꽃은 인도에서 불가능한 일을 비유할 때 쓰인다.

audumbarāṇi puṣpāṇi śvetavarṇaṃ ca vāyasam |
matsyapādām⁵⁷⁾ jale paśyen na nārīhṛdayasthitam ||⁵⁸⁾

우뚝바라의 꽃들이나 하얀 까마귀나 물에서 물고기의 발자국을 보게 될지언정 여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할지니.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우뚝바라꽃이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불교의 텍스트인 『숫따니빠따』(Suttanipāta)의 아래 구절도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yo nājthagamā bhavesu sāraṃ vicinaṃ puppham iva udumbaresu, so

57) Norman(1991/1993), p. 247도 같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 or a fish’s footprint in water, ...”라는 본인의 번역을 싣고 있다. Syed(1990), p. 134는 뵈엘링의 번역을 인용하고 있고 뵈엘링은 “... oder einen Fischfuß im Wasser ...”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노먼의 이해가 더 적확하다고 판단된다.

58) Syed(1990), p. 134는 이 구절을 “Böhrlingk. Indische Sprüche 7490”이라고 인용하고 있고 Norman(1991/1993), p. 247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개정 2판(1870-1873)에 따른 것이어서, 필자로서는 원본 확인이 불가능했고, 두 자료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인도 근현대에 많이 간행되어 온 subhāṣita(격언, 경구) 선집들 중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뵈엘링의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Sternbach(1974), p. 30을 참조하라.

bhikkhu jahāti orapāram urago jīṇṇam iva tacam purāṇam.⁵⁹⁾

우듬바라들에서 꽃을 찾는 자와 같이 현상들 속에서 실체를 얻지 못하는 그 출가수행자는 뱀이 오래된 허물을 벗듯이 이편과 저편을 [모두] 버린다.

이처럼 분명하게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비유 대상으로 쓰이는 우듬바라꽃의 예는 다른 빨알리(Pali) 텍스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dullabhāyaṃ dassanāya pupphaṃ odumbaram yathā.⁶⁰⁾

마치 우듬바라 꽃을 보는 것처럼 [성취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드문 일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우듬바라에 대한 비유는 노면이 언급하고 있듯이 불교와 함께 쉬라마나(sramaṇa)전통에 속하는 자이나 문헌에도 똑같이 나타난다.⁶¹⁾ 따라서 무화과나무인 우듬바라의 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관념은 불교전통에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불교 전승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적인 점은 바로 분다의 출현과 분다의 가르침을 얻는 일을 우듬바라꽃에 비유한다는 사실이다.⁶²⁾

59) Suttanipāta 1.1.5. Norman(1991/1993), p. 246과 Syed(1990), p. 134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60) 『비마나발투』Vimānavatthu 50.16. Jayawickrama(1977), p. 73. Norman(1991/1993), p. 246이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다.

61) 『나야담마까하오』(Nāyādharmakāhāo) 1.1.28: “udumbarapupphaṃ iva dullāhe”(우듬바라꽃처럼 어려운 일이다.), Norman, K. R.(1991/1993), p. 247에서 재인용. 자이나 전승에 나타나는 다른 용례를 같은 노면의 논문을 보라.

62) 불교 이외의 다른 전통들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듬바라꽃을 비유대상으로 사용하는 예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5. 불가능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불교의 빠알리(Pāli) 전승에는 분다가 혹은 분다들이 출현하는 일이 얼마나 드물고 어려운 일인지를 강조할 때, 분다의 출현을 우뚝바라꽃을 보는 일에 비유하곤 한다.

udumbarasya yatha puṣpaṃ dullabhaṃ kaḍācid utpadyati loke māṇava ...
buddhāna mahāyaśāna kaḍācid utpādaṃ tathagaṭānām.⁶³⁾

우뚝바라꽃이 [얼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의 세상에 이처럼 드물게 빛나는 분다와 그렇게 [모범이 된 해탈의 길을] 간 자(如來)들이 나타난다.

odumbaram iva kusumam na hi sulabhadaṛśanā sambuddhāh.⁶⁴⁾

우뚝바라의 꽃을 보는 것만큼 분다들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우뚝바라꽃이 이 맥락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드문 일이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더 가치있는 일을 나타내는 데 우뚝바라가 사용되고 있다. 사상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용례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분다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주어졌으니, 이 기회가 아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취지의 비유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것

63) Mahāvastu I, 233-234. Norman(1991/1993), p. 246 참조.

64) Mahāvastu I, 270. Norman(1991/1993), p. 247 참조.

과 불가능에 가까운 드문 일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의미상의 도약이 아마도 불교전승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도약이 일어났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현재 필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교의 특정한 맥락에서 이러한 도약이 충분히 확인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6. 왜 우담바라나무인가의 질문

앞서 빨알리 텍스트들에서 나타난 우담바라꽃의 함축을 고려하면 우담바라(優曇婆羅), 우담바라(優曇波羅), 우담발라화(優曇跋羅華), 우담발화(優曇鉢華), 우담화(優曇華)와 같은 음역으로 된 한역어뿐 아니라 영서(靈瑞), 서응(瑞應), 상서운이(祥瑞雲異), 공기화(空起花)와 같은 의역어의 의미와 맥락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⁵⁾ 대승불교 문헌들에 우담바라가 등장하는 맥락은 불가능에 가깝게 드물다는 것이 주된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실제로 구현되는 ‘분다가 이 세상에 출현한 사실’ 혹은 ‘출현했거나 출현할 사실’에 방점이 찍혀 있다.⁶⁶⁾ 여기에서 남는 질문은 바로 왜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 중에서 우담바라가 바로 이러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꽃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꽃이 없다’는 면에서 모든 무화과들은 공통점을 갖는 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정한 언어표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 반드시 논

65) FDC, p. 6413 s.v. 優曇跋羅華 참조.

66) Norman(1991/1993), p. 249은 이미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Nevertheless, in its most common usage in Buddhist literature — as an indication of the rarity of the appearance of a Buddha — there is a change of emphasis. The simile is used to illustrate something that did occur, but very rarely. The point was not that there were never Buddhas, but that they were exceedingly rare. The same developed implication is also seen in the usage in the modern languages.

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텍스트자료에 그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를 안고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 맥락에서 연구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할 뿐이다.

불교전통에서 나무와 연관되는 상징들은 많지만 크게 보자면, 직접 역사적인 분다의 일대기와 연관된 나무들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편에는 과거에 이 세상에 이미 나타난 적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분다들과 연관된 나무들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는 분다가 그 아래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쌀라(Skt. śāla/P. sāla, *Shorea robusta*), 분다가 어릴 때 그 아래서 초선의 체험을 했다고 전해지는 잠부(jambu/jambū, *Syzygium cumini*), 분다가 그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아쉬발타(aśvattha, *Ficus religiosa*)⁶⁷⁾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⁶⁸⁾ 이 중 가장 중요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해탈의 나무, 아쉬발타가 바로 무화과에 속한다. 그리고 역사적 분다에 앞서 세상에 나타났다는 과거의 일곱 분다들에는 각각 특정한 식물이 그 상징으로 부여되는데, 과거에 나타난 분다들 중의 한 명인 까나까무니(Kanakamuni/P. Koṇāgama)가 그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의 나무가 바로 우뚝바라라

67) 이 나무는 사람들이 주거지 주변에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내는 데에 종종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의 뿌리가 수평방향으로 잘 자라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있는 흙이 비에 쓸려 내려가고 나면 나무뿌리가 노출되어 사람들이 나무그늘에 자리잡고 앉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데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분다가 그 아래에 자리잡고 앉아 명상에 들었고, 그 결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승되는 이유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68) 강성용(2007), pp. 125-126. 그리고 분다의 일대기에 관계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만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예로 『랄리따비쓰따라』(Lalitavistara)에는 분다가 태어난 것은 뿔락사(plakṣa)나무 아래에서라고 서술한다. 단 이 나무는 훌륭한 쌀라(gāla)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복잡한 나무들과 연관된 상징 체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고 한다.⁶⁹⁾ 그래서 까나까무니의 상징은 우둠바라가 된다.

이러한 맥락은 불교의 텍스트전승뿐 아니라 불교 미술작품들에서도 확인된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텍스트자료뿐 아니라 조각이나 그림으로 남겨진 자료들이 우둠바라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어 왔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현대 인도 지역언어들에 남아있는 연관된 나무의 이름과 함께, 우둠바라가 바로 *Ficus racemosa*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불교 미술품들이기 때문이다.⁷⁰⁾ 예로 바룬(Bhārut)의 유적에서는 까나까(Kanaka)⁷¹⁾의 깨달음의 나무가 비문에 나타나는데, 그려진 내용은 *Ficus racemosa*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직접 나무 몸통 혹은 밑동에 붙은 열매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우둠바라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⁷²⁾ 또 더 분명하게는, 아잔따(Ajanṭā) 석굴에서 “Ka[naka]muni”의 이름과 함께 그 위쪽에 상응하는 나무의 이름들이 기록으로 나오는데 저기에 “udum[bara]”가 나타난다.⁷³⁾

다양한 상징의 맥락이 생겨나고 발전된 과정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인도의 무화과나무인 우둠바라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된 관념의 투사대상이 되었는지를 밝히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다시 남는 질문은

69) Dīghanikāya II, 4(Mahāpadāna-Suttanta):

koṇāgamano bhikkhave bhagavā araham sammā-sambuddho udumbarassa mule abhisambuddho.

기타 관련 텍스트는 Syed(1990), pp. 136-137을 보라.

70) Syed(1990), pp. 136-137 참조.

71) ‘-muni’는 종교적 성인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 중 하나이다.

72) 앞서 ‘열매가 나무의 밑둥이나 밑동에 가까운 아주 굵은 줄기에 직접 열린다는 사실’을 우둠바라의 특징으로 지적한 바 있다.

73) Zin(2003), p. 458. 그리고 458쪽 이하에 텍스트자료와 미술사적 자료의 상응관계와 불일치에 대한 서술이 제시되어 있다.

왜 우뚝바라가 풀잠자리알로 대체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 불교전통에 나타나는 텍스트들과 기타 연관자료들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우뚝바라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갔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⁷⁴⁾

7. 풀잠자리알

불교전승을 통해 우뚝바라에 대한 서술들이 전해졌지만, 우뚝바라가 서남아시아지역, 그리고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동북아시아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익숙한 식물이 아니라는 것이 오해의 근거가 되었을 것은 당연하다.⁷⁵⁾ 무화과를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뚝바라의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하다. 생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특정한 동식물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사정이 텍스트 자체의 의미에 대해 심각한 논란을 낳게 되는 것도 불교전승의 역사에서 드문 일이 결코 아니다.⁷⁶⁾ 하지만 왜 풀잠자리알이 우

74) 여기에 연관되어 고려되어야 할 텍스트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목들만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MBDJ vol. 1, pp. 224-225 와 FDC, p. 6413을 보라.

75) 중국인들이나 중국문화권 전체에 걸쳐 무화과나 우뚝바라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도 우뚝바라가 광시(廣西省) 남부, 구이저우(貴州省), 윈난(雲南省) 지역에서 습도가 높은 곳에 자라는 것으로 파악된다. *Flora of China*, vol. 5, p. 47에서 *Ficus racemosa* Linnaeus, 중국명 聚果榕[ju guo rong]에 대한 서술에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자료의 온라인서비스(http://www.efloras.org/florataxon.aspx?flora_id=2&taxon_id=242322427 2013년06월01일 확인)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76)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순파니빠따』의 Khaggavisāṇasutta(무소의 뿔경전에 대한 논란이다. 인도어로 Skt. khaḍga/P. khagga는 인도의 토종 코뿔소(*Rhinoceros unicornis*)를 가리키는데, 인도북동부에서 사는 인도코뿔소는,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다른 코뿔소들과 달리 뿔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이 논란의 핵심에 자리



출처: 박규택 외 (2012), p. 129.

[그림 5] 풀잠자리



출처: 이종욱 (1998), p. 219.

[그림 6] 풀 위에 앉은 풀잠자리의 모습

담바라로 오해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의미변이의 물적 기반이 되는 풀잠자리의 생태적 특징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풀잠자리(*Chrysopa intima* MacLachlan)는 한국, 일본, 러시아(시베리아)에 분포하며 몸길이 20mm 내외이고 더듬이가 긴 곤충이며,⁷⁷⁾ 풀잠자리목(Neuroptera)에 속하는 곤충이다. 따라서 잠자리목에 속하는 잠자리와는 계통상 그리고 형태상으로도 다른 곤충이다. [그림 5] 그리고 [그림 6]을 보라. 특히 날개가 뒤로 접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6]을 보면 풀잠자리가 결코 잠자리의 일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풀잠자리(Chrysopidae) 성충은 녹색을 띠고 겹눈을 가지고 있으며 날개는 투명하고 날개에 많은 맥을 지니고 있어서 영어로 ‘green lacewing’이라고 불린다.⁷⁸⁾ 중요한 진딧물 포식자여서 인공적으로 진딧물 방제에 사용되기도 한다. 종류에 따라 서식 장소가 다르고 국내에는 6속 11종이 있다.⁷⁹⁾

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Norman (1996)을 보라.

77) 박규택 외.(2012), p. 128.

78) 이종욱(1998), p. 218. 흔히 ‘brown lacewing’이라고 불리는 곤충(Hemerobiidae)과는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고 해부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79) 이종욱(1998), p. 218.

그런데 이 풀잠자리의 암컷은 알을 낳으면서 접착제와 같은 액을 약간 풀잎과 같은 곳에 붙이고, 그렇게 하자마자 배를 빠르게 움직여 순식간에 굳어가는 접착액을 가늘게 실처럼 늘어내서 그 끝에 알을 붙이는 방식으로 알을 낳는다.⁸⁰⁾ 이렇게 해서 알을 낳을 때 긴 실과 같은 대의 끝에 알을 매달아 놓아 포식자나 기생충으로부터 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⁸¹⁾ 이런 사정으로 실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하얀 알들이 바로 요즘 한국의 언론에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우담바라의 정체이다.

우리가 우담바라라고 착각을 하곤 하는 대상이 꽃이 아니고 곤충의 알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33년에 발간된 일본의 불교사전에서 모치즈키는,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풀잠자리의 알(草蜻蛉[くさかげろう]の卵)이 우담바라로 착각되고 상서로운 징조로 받아들여지는 “미신”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⁸²⁾ 또 2012년에 출간된 박규택 등이 지은 『한국곤충대도감』 128쪽에는 “먹이 식물의 잎에 가는 실 끝에 붙은 알”이 “우담바라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왜 풀잠자리알은 우담바라가 되었을까? 필자는 우선 알이 맺히는 장소가 상식 밖이라는 사실을 꼽고 싶다. 불상, 즉 돌이나 나무의 표면에서 사람의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이 알이 나타난다는 현상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낼 만하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풀잠자리가 가진 겹눈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곤충들이 가진 겹눈은 겹눈을 이루는 홑눈이 개별적으로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방식이 인간의 눈과는 많이 다르다. “개별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기 때문에 앞과 옆쪽은 물론 뒤쪽의 상황까지

80) O'Toole 1986, pp. 62-63.

81) O'Toole 1986, p. 62.

82) MBDJ vol. 1, p. 224a.

도 판별하여 사냥을 하거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⁸³⁾ 하지만 날눈들이 모여서 이루는 겹눈은 구조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곤충이나 동물들은 그 형체를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고 모자이크처럼 희미하게”⁸⁴⁾ 인식되기 때문에 왜곡현상이 일어난다. 이 왜곡현상 때문에 잠자리가 “매끈한 차량의 표면을 수면처럼”⁸⁵⁾ 인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물속에 알을 낳아야만 하는 잠자리가 이런 곳에 산란을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⁸⁶⁾ 풀잠자리는 우리가 흔히 ‘잠자리’라고 부르는 곤충들과는 계통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겹눈이 갖는 특성으로 인한 왜곡현상이 이러한 의외의 곳에 알을 낳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꼽을 만한 풀잠자리알의 특징은 그 알의 모양이 특별한 꽃을 연상시킬만 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알에서 유충이 부화하면서 공중에 매달린 알을 깨고 유충이 나오고 나면 그 알의 껍질은 끝부분이 갈라져서 벌어진 채로 매달려 남게 되는데 이 갈라진 껍질의 모양은 아주 작은 크기의 꽃이 지닌 꽃잎들처럼 보이게 된다.

셋째로 불교의 전승에 나타나는 상서로운 기적적인 현상들에 대한 서술들이 이러한 독특한 알의 모양과 상응되기 쉬운 대목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로 세계를 평정하는 왕(Cakravartin, 轉輪聖王)이 나타날 때 일어난다고 전해지는 기적적인 현상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에 떠 있는 꽃’이라는 관념을 풀잠자리알에 투사하게 되면, 풀잠자리알이 바로 전륜성왕의 도래를 나타내는 꽃으로 둔갑하게 되는 가능성 등이다. 이 세 번째 맥락은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83) 정광수(2007) p. 95.

84) 정광수(2007) p. 95.

85) 정광수(2007) p. 95.

86) 정광수(2007) p. 96-97을 보라.

참고문헌

- 강성용(2007), 『초선의 경험과 회상 그리고 서술 - 분다 일대기에서 초선에 대한 서술이 갖는 특징과 그 의미들』, 『인도철학』 23, 인도철학회.
- 박규택 외(2012), 『한국곤충태도감』, 지오북.
- 이종욱(1998), 『한국 곤충 생태 도감 4』,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 정광수(2007), 『한국의 잠자리 생태도감』, 일공육사.
- Amarakośa: N. G. Sardesai and D. G. Padhye eds.(1940), *Amara's Nāmalīngānuśāsanaṃ A Sanskrit Dictionary in Three Chapters Critically Edited with Intraduction and English Equivalents for Each Word and English Word-Index. Poona Oriental Series No.69. Poona: Oriental Book Agency.*
- Athreya, Vidya R.(1997), “Nature Watch Trees with a Difference: The Strangler Figs”, *Resonance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7(1997) 67-74.
- Barrett, Mary F.(1946), “The Case of the Vanishing Ficus racemosa”, *Bulletin of the Torrey Botanical Club*. 73.3(1946) 312-325.
- Bodewitz H. W.(1976/2003), *The Daily Evening and Morning Offering (Agnibotra) according to the Brāhmanas*, Leiden: E. J. Brill [reprint; Delhi: Motilal Banarsidass 2003].
- Cook, James M. and Stuart A. West(2005), “Quick Guide: Figs and Fig Wasps”, *Current Biology* 15.24(2005) 978-980.
- Dīghanikāya II: T. W. Rhys Davids and J. Estlin Carpenter eds.(1966), *The Dīgha Nikāya* vol.2, London: Pali Text Society.
- Eggeling, Julius(1882-1990), *The Śatapatha-Brāhmaṇa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Mādhyandina School translated by Julius Eggeling Parts I-V*. 5 vols.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ed. by F. Max Müller vols. 12, 26, 41, 43 and 44., Oxford: Clarendon Press.
- FDC: 星雲[Hsing-yun] ed.(1989), 佛光大辭典 [*Foguang-dacidian, Encyclopedic Dictionary of the Buddha Light*] 8 vols., Tai-wan: 佛光出版社[Foguang Chubanshe] [reprint; Peking: Commercial Press, 1993].
- Gonda, Jan(1979), “Differences in the Rituals of the Rgvedic Families”, *Bulletin of*

-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42.2(1979) 257-264.
- Jakobsen, Knut A.(2006), “What Similes in Sāṃkhya Do: A Comparison of the Similes in the Sāṃkhya Texts in the *Mahābhārata*, the *Sāṃkhyakārikā* and the *Sāṃkhyasūtr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4(2006) 587-605.
- Jia, Xiao Cheng Jia et al.(2008), “The Phenology and Potential for Self-pollination of Two Australian Monoecious Fig Species”, *Symbiosis* 45(2008) 91-96.
- Kāṭhaka-Saṃhitā: Leopold von Schroeder hrg.(1900-1910), *Kāṭhakam Die Saṃhitā der Kāṭha-Śākhā* 3Bd., Leipzig: F. A. Brockhaus.
- KEWA: Manfred Mayrhofer(1956-1980), *Kurzgefaßt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s Altindischen [A Concise Etymological Sanskrit Dictionary]* 4 Bände.,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Bd.1: 1956; Bd.2: 1963; Bd.3: 1976; Bd.4: 1980.
- Mahāvastu-Avaḍāna: Émile Senart(1882-1897), *Le Mahāvastu, texte sanscrit* 3 vols., Paris 1882; 1890; 1897 [reprint; 東京: 名著普及会 1977].
- Maitrāyaṇīya-Saṃhitā: Leopold von Schroeder hrg.(1923), *Maitrāyaṇī Saṃhitā* 4Bd., Leipzig.
- MBDJ: 望月 信亨[Mochizuki Shinkō] ed.(1933-1936), 望月佛教大辭典[Mochizuki Bukkyō-daijiten] 10 vols. 増訂版[Enlarged and corrected edition], Tokyo: Sekai Seiten Kankō Kyōkai.
- Mylius, Klaus(1995), *Wörterbuch des altindischen Rituals mit einer Übersicht über das altindische Opferritual und einem Plan der Opferstätte*, Wichtrach: Institut für Indologie.
- Norman, Kenneth Roy(1991/1993), “As rare as fig-flowers”, In: *Perspectives on Indo-European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Studies in Honor of Edgar C. Polomé*, Virginia: McLean 1991, pp. 216-220 [reprint; K. R. Norman, *Collected Papers* vol.4, Oxford: Pali Text Society 1993, pp. 245-250].
- Norman, Kenneth Roy(1996), “Solitary as a Rhinoceros Horn” *Buddhist Studies Review* 13.2(1996) 133-142.
- O’Toole, Christopher(1986), *The Encyclopedia of Insects*, Oxford: Equinox.
- PW: Otto Böhtlingk & Rudolph Roth(1855-1875), *Sanskrit-Wörterbuch* 7 Bde., St. Petersburg: Kaiserli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reprint; Delhi: Motilal Banarsidass 1990].

- Roxburgh, William(1832), *Flora Indica: or, Descriptions of Indian Plants* vol.3. Calcutta: W. Thacker and Co./London: Parbury, Allen and Co.
- Rønsted et al.(2005), “60 Million Years of Co-Divergence in the Fig-Wasp Symbiosis”, *Proceedings: Biological Sciences* 272,1581(2005) 2593-2599.
- Śatapatha-Brahmaṇa: Albrecht Weber ed.(1924), *The Śatapatha-Brahmaṇa in the Mādhyandina-Śākhā with Extracts from the Commentaries of Sāyaṇa, Harisvāmin and Dvivedagaṇiṅa*, Leipzig [reprint; Berlin 1855].
- Sternbach, Ludwik(1974), *Subhāṣita, Gnostic and Didactic Literature.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ed. by Jan Gonda vol.4 pt.1,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Suttanipāta: Dines Andersen and Helmer Smith eds.(1913), *Sutta-Nipāta*, London/Boston/Melbourne/Henley: Pali Text Society [reprint 1965].
- Syed, Renate(1990), *Die Flora Altindiens in Literatur und Kunst* [Dissertation an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zu München].
- Vimānavatthu: N. A. Jayawickrama ed.(1977), *Vimānavatthu and Petavatthu. Pali Text Society Text Series* 168. London: Pali Text Society.
- Vogel, Claus(1979), *Indian Lexicography.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5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Pt.2 Fasc.4,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Zin, Monika(2003), *Devotionale und ornamentale Malereien* vol.1: *Interpretation*, vol.2: *Tafeln, Ajanta Handbuch der Malereien* 2,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원고 접수일: 2013년 9월 16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From Indian Fig Tree to Eggs of the Green Lacewing
- The Legend and Religious Context of *Udumbara* -

KANG, Sung Yong

The occurrence of the Buddhist wonder, a small flower called '*u-dam-ba-ra*'(우담바라), which seats itself on unimaginable places, such as a stony or metallic surface or even the finger of a Buddhist monk, has long caught the public's attention. The Korean *u-dam-ba-ra* is not a flower but, in fact, the small eggs of the green lacewing(*Chrysopa intima* MacLachlan) which hangs in the air from silk stalks.

An attempt is made in this article to clarify the historical origin of this belief in the Buddhist wonder embodied in the misunderstood insect eggs. The historical origin of this miraculous Buddhist flower is a species of Indian fig tree, namely *udumbara*(*Ficus racemosa* Linn). The mystification of the Indian *udumbara* flower already happened in the Buddhist traditions of India itself, but the misconception of the green lacewing eggs for the *udumbara* flower seems to have been formed in East Asia. The complex biological, ecological and religious contexts of the multilayered mystification of an Indian fig tree into the far eastern *yōutánbáluó*(優曇跋羅) are surveyed on the basis of Indian original text materials.

The botanical peculiarities of the Indian *udumbara* reserving the status of the symbol for the vitality and fertility was already recognized in the Vedic traditions of ancient India. Later in the early Indian Buddhist traditions, the image of the *udumbara* was shifted from that of their impossibility to that of their rareness. This is basically due to the fact that fig flowers are kept inside the syconium, the result of which the flowers are not visible at all from the outside, and the '(false-)fruits' are grown up on the trees. Such an extraordinary impression is reflected in the Chinese name of the fig fruit, i.e. *wúhuāguǒ*(無花果, the fruit without flower). Additional botanical and partly relevant zoological features of Indian *udumbara*, such as the pollination by specified fig wasp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give an answer for the question of why the *udumbara* alone out of the numerous fig tree species in India was elevated to the symbolic status of rareness meaning the immeasurably high value justly comparable to the appearance of the Buddha in this world.

